

정부, 본회 양돈업자조금사업 운용계획 최종 승인

— 총4억5천만원 규모 자조금사업 본격 추진케 돼

본회의 양돈업자조금사업계획이 정부에 의해 최종 승인됨으로써 자조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9월 9일 본회가 지난 7월 25일 제출한 「양돈업자조금사업운용계획(안)」에 대해 본회 원안대로 승인하고, 이를 본회에 통보해 왔다.

이번에 승인된 양돈업자조금사업운용계획(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돈업자조금의 조성방법과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양돈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양돈업자조금사업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자조금사업의 범위는 ▲사육조절사업과 수매비축사업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생산성향상 및 상품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소비자 및 생산자계도를 위한 교육홍보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업 등으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자담 3억원, ▲정부보조금 1억5천만원 등 총 4억5천만원규모이다.

'92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올해중 유통세미나 3회, 돈육요리강습 4회, 돈육요리경연대회 1회, 표어·포스터 현상공모, 소비자의식조사, 주부 등 소비자교육, 회원연수교육, 유해잔류물질 조사 및 지도, 돈육가공개발 등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본회, 「양돈장 시설개선 및 환경관리 세미나」 개최

— 8월 28일, 9월 1일, 3일 유성, 마산, 서울 3곳서
본회는 지난 9월 3일 오후 2시 양돈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양돈장 시설개선 및 환경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사료곡물협회(USFGC) 후원으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제임스 바커(James Barker)교수를 초빙하여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본회 회원농가 및 시설·기자재업체 관계자, 사료회사 직원 등 1백여명이 참석, 양돈장 시설과 환경관리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전동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계는 시설분야면에서 연구실적이나 현장에서의 기술축적이 빈약한 상태』라고 지적, 『이러한 상황에서 마침 미국사료곡물협회에서 바커교수를 초빙해 세미나를 갖게돼 우리 회원들은 물론, 관련업계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모쪼록 세미나를 통해 선진기술을 습득,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남부권에서는 마산의 한우예식장에서, 중부권에서는 유성 프린세스호텔에서 8월 28일과 9월 1일에 각각 개최한 바 있으며, 세미나마다 참석자들의 질문공세가 쏟아져 나와 양축농가들의 많은 관심을 반영했다.

본회, 무허가축사 처리지침서 각도 협의회·지부에 긴급 배부

본회는 최근 정부가 무허가축사 양성화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이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무허가축사 처리지침」을 각도협의회와 지부에 배부했다.

이 지침서에서 정부는 농가가 법내용과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무허가로 축사(사료창고, 축산폐수정화시설 등 부대시설 포함)를 지어 양축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관계법에 의해 추진조치한다는 기본방침 외에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경위 ▲무허가축사 현황 ▲무허가축사에 대한 문제점 ▲무허가축사 처리지침 ▲추인관계서식 등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규제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에서 4만농가 12만동의 축사가 규제될 것으로 보여, 축사시설 개선 및 자동화에 의한 성력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는 물론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가 용이해져 환경오염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본회 조진형부회장, 민자당 원내부총무 발탁



조진형 부회장

본회 조진형부회장(민자당)이 최근 민자당 원내부총무로 임명돼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부회장은 지난 3월 24일의 제14대총선에서 인천 북구갑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4만4천9백90표를 획득해 차점자를 7천2백87표차로 눌러 국회의원에 당선

된 바 있으며, 지난 6월 23일 민자당에 입당, 원내부총무를 맡게 된 것이다. 조부회장은 현재 인천에서 덕원농산을 경영하고 있고, 본회 초창기부터 협회에 가입, 축산법 개정 당시 많은 활약을 했으며, '84년부터 줄곧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협회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조부회장은 국회 내무위원회에 소속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양돈인들과 양돈업계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회, 추석절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시달

본회는 지난 추석절 성수기를 맞아 각 지부 및 대규모 양돈장에 대해 추석절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에 힘쓸 것을 시달했다.

본회는 추석절 육류성수기를 대비, 추석물가대책기간('92년 9월 1일~9월 12일)중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농림수산부의 요청을 받고, 각 지부 및 덕원농산 등 26개 대규모 양돈장에 공문을 보내 「추석을 앞두고 가격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출하량을 조절하므로써 생산물의 가격지지에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창녕지부, 돈육소비홍보 및 판매향상을 위한 캠페인 실시

— 추석전 3일간 집중 홍보

창녕지부(지부장: 성기호)는 추석전인 지난 9월 5일, 6일, 7일 3일간 창녕군민들을 대상으로 「돈육소비홍보 및 판매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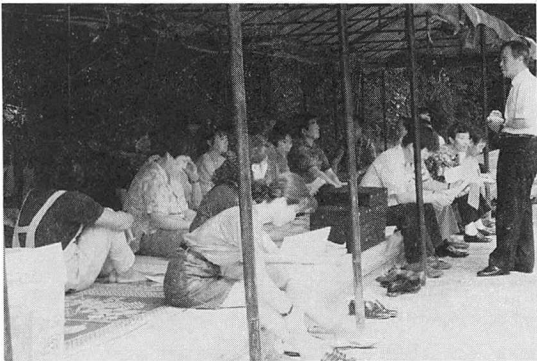
창녕지부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8절지 크기의 홍보용 전단(칼라인쇄) 1만매를 제작, 지난 '91년 12월 8일 개설하여 운영중인 직판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은 물론 각 면마다 회원들이 식당, 경로당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전단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일부 회원들은 가가호호 방문하기도 하는 등 열의를 보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번에 창녕지부가 제작한 홍보용 전단에는 ▲돼지고기가 우리 몸에 좋은 이유 ▲돼지고기는 특히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돼지고기 구입요령 ▲돼지고기 요리방법 ▲돼지고기 부위별 모양 및 특성 등의 내용과 함께 직판장 개설 취지, 직판장 약도 등이 짜임새 있게 담겨 있다.

창녕지부는 앞으로도 직판장 사업을 확대, 현재 창녕읍에 있는 직판장 외에 남지읍에도 분점을 개설하여 돼지고기 가격 안정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안양 시흥지부, 도체등급제 교육 실시



안양·시흥지부(지부장: 김찬채)는 지난 9월 4일 오후 지부회원과 지역내 양돈인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 소재 수리산 야외교장에서 「도체등급제의 실시 목적과 우리의 대응책」을 주제로 회원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돼지 도체등급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일부에서는 출하를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회원들에게 도체등급제의 실시목적을 이해시킴으로써 도체등급제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김찬채지부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도체등급제의 실시목적 ▲등급거래 체계 ▲실시 지역 및 시기 ▲양돈인들의 대응책 ▲등급판정기준 등에 대해 강의했다.

경남북도협의회 개최

경남도협의회(회장: 신태식)와 경북도협의회(회장: 조옥봉)는 지난 8월 8일 경남 울산군 상북면 덕현리에서 경남북도협의회를 갖고 생산자 직판장 운영을 비롯한 현안문제들에 대해 협의했다.

본회 최상백부회장을 비롯 30명의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직판장 운영과 관련, 정육점보다 저가로 돈육을 공급키로 하고, 다수인의 공동명의로 등록을 함으로써 소득세의 부과에 대처키로 했다. 또, 돈육의 수출과 관련해서는 유해잔류물질의 방지를 고려한 사양시 생기는 증체율의 저조에 대해 두당 2만원 정도의 보조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이밖에 환기 및 돈분처리 등을 자동화, 성력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충북도협의회 개최

충북도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9월 18일 오후 김철수회장을 비롯한 도내 각 지부장들이 참석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제천·제원지부 사무실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도예산에서 직판장 설치자금을 보조받는 것이 가능하다는데 주목, 보조절차와 직판장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본회, 월간양돈 편집위원회 개최

본회는 지난 9월16일 본회 회의실에서 김원태(푸리아 코리아 이사), 김성훈(선진원종 농장장), 예재길(바이엘화학 학술부장), 정찬길(건국대교수), 하대중(제일제당 육가공기획실장)씨와 본회 노영한 전무이사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92년 제4차 월간양돈 편집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편집위원회에서는 8~9월호 편집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10~12월호 편집방향이 논의되었다.

서산·태안지부, 환경관리세미나 개최

서산·태안지부(지부장 : 이태무)는 지난 8월 20일 11시 지부회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시내 서산가든에서 양돈장 환경관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참석한 (주)홍진인터내셔널의 박노호씨는 생태계와 수질오염, 양돈장 정화조, 축산 오·폐수 처리와 미생물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태무 지부장은 지

부발전예 공이 큰 전임 최윤원지부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아산지부, 양돈세미나 개최

아산지부(지부장 : 김현병)는 지난 9월 17일 오후2시 온양유스호텔에서 「GSP돈사시설 및 운영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효소재 판매원인 동명산업(주)의 후원으로 엑셀효소 발명자인 일본 (주)오오하라의 우야마(宇山精)씨를 초청하여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본회 회원등 인근 충남·경기지역의 양축농민 2백50여명이 참석했다.

협회단신

달성지부 설립승인 취소

본회는 지난 9월 16일 경북도협의회(회장 : 조옥봉)의 요청과 회원들의 결의에 의한 지부폐쇄보고를 해움에 따라 본회 지부설치규정 제10조에 의거, 지난 9월 16일부로 이무열지부장의 지부장 인준을 취소하는 한편, 달성지부의 설립승인을 취소했다.

이에따라 회원들은 달성지부 재발족시까지 인근 대구지부에서 임시로 위탁관리케 된다.

본회 직원채용 및 인사발령

본회는 지난 9월 8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도부에 이태호씨(44세)를 새로 채용하는 한편, 지도부에 근무하던 이승섭씨(40세)를 제1검정소 관리과장으로 정식발령했다.

이태호씨는 충북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주)삼양사에 근무했었다.

강원영동지부 사무실 이전 및 직원채용

강원영동지부(지부장 : 김경수)는 지난 8월 26일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하는 한편, 이영숙양(23세)을

신규채용했다. 이양은 강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 ▲주소 : 강릉시 포남동 1146-16번지
- ▲전화 : (0391)2-7003(중전과 동일)

천안지부 사무실 이전

천안지부(지부장 : 김인식)는 지난 9월 6일 업무효율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했다.

- ▲주소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 ▲전화 : (0417)552-9946/8(중전과 동일)

인천지부 전화번호 국번 변경

인천지부는 최근 다음과 같이 전화번호 국번을 변경했다.

- ▲변경전 : (032)425-3313, (032)432-3658
- ▲변경후 : (032)466-3313, (032)465-3658

본회 이상구이사 전화번호 변경(농장)

- ▲변경전 : (0416)52-2677
- ▲변경후 : (0416)857-8825